제1절 광회1리(廣回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광회2리, 쌍전2리가 있고, 서쪽은 낙동강으로 흐르는 내(川)가 마을 앞을 지나며 그 건너편은 봉화군 소천면(小川面)이다. 그리고 남쪽은 광회2리와 접하였고, 북쪽은 전곡리(前谷里)와 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2006년에 광회보건진료소가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00년경에 구씨(具氏)가 개척(開拓)하여 광비(廣比)라 하였는데, 이곳이 울진(蔚珍), 봉화(奉化) 간의 12령(嶺) 중에서 가장 넓은 영(嶺)의 밑이라 하여 광비(廣比)라 하였다 한다.

1) 거리광비(外廣比)

금강송면 소재지(所在地)로부터 서쪽에 있으며 낙동강 상류의 국도(國道)변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거리광비(外廣比)라 부른다.

2) 안광비(內廣比)

광비(廣比)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광비(內廣比)라 부른다.

3) 득거리골[들방아골]

조선시대에 울진의 어느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이 마을에 이르자 산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걱들걱 하였다 하여 득거리골이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46세대가 거주하며 온양 방씨(溫陽方氏), 진주 강씨(晋州姜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광비원(廣比院)

중앙관청(中央官廳)과 울진 간의 동서통로(東西通路)였던 광비(廣比)에 고려시대부터 관원(官員)의 국영(國營) 광비원(廣比院)이 있었다.

2) 성황당(城隍堂)

내광비(內廣比), 외광비(外廣比)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어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올려 동민의 행운(幸運)을 기원하고 있다.

제2절 광회2리(廣回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된 지역으로 동쪽은 통고산(通古山) 너머에 쌍전1리와 왕피1리가 있고, 울진군과 영양군, 봉화군의 3개 군(郡)이 접해 있는 곳이며, 동서(東西) 분수령(分水嶺)인 답운재(踏雲峠) 운봉(雲峯)이 배경산(背景山)으로 뻗어있다. 그리고 서쪽은 광회1리, 남쪽은 낙동강 상류인 옥방천(玉房川)을 사이에 두고 봉화군과 길게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진조산(眞鳥山) 일대로 광회1리와 접해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거응동[巨應洞 일명 : 옥방(玉房)]

1560년경에 우씨(禹氏)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開拓)하였다 한다. 지관(地官)이 이곳을 지나다가 말하기를, 지형(地形)이 금부(金釜)와 같이 생겼으므로 앞으로 크게 번창(繁昌)할 것이라 하여 지명(地名)을 거응동(巨應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냇물을 사이에 두고 봉화군 소천면(小川面) 분천5리(汾川五里)와 한 지역을 이루고 있다. 광복(光復) 전에는 일본인(日本人)이 중석광(重石鑛)을 개발하였으나, 광복 후부터 본격적으로 채광(採鑛)되었다. 미군정(美軍政) 당시 미군(美軍) 1개 대대(一個 大隊)가 이 마을에 주둔(駐屯)하였고, 미군정(美軍政)에서 직접 관여하여 미군(美軍)이 2차 세계대전에서 소모한 중석(重石)을 충당(充當)하기 위하여 미 본국(美本國)으로 반출하였다. 미군정(美軍政) 이후에는 민영광업